

成人男子의 自我概念과 衣服行爲와의 相關研究

—衣服滿足度, 誇示性, 流行을 中心으로—

李 京 孫* · 姜 蕙 遠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衣生活科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Clothing Behavior of Adult Males

Kyung Son Lee* and Hewon Kah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clothing behavior of adult males.

Measures selected for this study consisted of the clothing satisfaction, clothing exhibitionism and fashionability scale developed by author and Chung self-concept scales.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three groups of adult males in Seoul. Data from 532 respondents, (171 bankers, 181 businessmen and, 180 teachers) were analyzed by correlations and F-tests.

The results were:

- 1)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otal positive self and the satisfaction of clothing.
- 2)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self-criticism and the exhibitionism of clothing.
- 3)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physical self and the exhibitionism of clothing.
- 4)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on an aspect of clothing behavior among the occupational groups: the bankers and businessmen were more interested in fashion than the teachers.
- 5) As for the criterion used on the purchase of clothing for five occasions, comfort was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clothing selection.

1. 序 論

人間行動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 個個人的 衣服

行動은 여러 要因의 影響을 받는다. 오늘날 衣服을 착용하는 動機는 本能的인 측면이외에 복잡한 社會안에서 個人이 대처해 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衣服은 社會的 相互作用에서 無言의 言語로써,

* 培花女子 專門大學 衣裳科

* Dept. of Clothing, Baewha Women's Junior College

象徴의 價値를 지닐뿐만 아니라 着用者 自身の 自我形成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시대의 특정한 文化圈내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다.

自我概念은 自己自身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느낌의 총합체이며, 이것은 人間行動의 方向을 決定하는 하나의 중요한 決定要因이 되므로, 衣服行動에 自我概念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衣服에 관한 研究는 수십년동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女性을 對象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本研究는 韓國男性들의 自我概念과 衣服行動과의 관계를 規明하고, 衣服現況을 把握함으로써, 男子들의 衣服行動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을 분석하고 동시에 合理的인 衣生活 方向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II. 文獻의 背景

1. 自我概念

自我概念은 그 시초를 自己理論에서 살펴 볼 수 있다. 自我는 他人과 구별되는 고유한 그 自身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William James¹⁾는 처음으로 自己(Self) 또는 自我(Ego)의 概念을 說明하였다. 즉 자기는 經驗的 自己(Empirical Self)로서,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의 총합을 意味하며, 이외에 自己의 構成要素로서 物質的 自己(Material Self), 社會的 自己(Social Self), 精神的 自己(Spiritual Self) 및 純粹自我(Pure Ego)의 概念을 設定하였다.

그후 現代 心理學의 發達로 Self 라는 用語는 두개의 뚜렷한 意味를 지닌다. 하나는 自己自身에 대한 個人이 지니는 態度 및 感情으로 “對象으로서의 自己”이며, 다른 하나는 行動과 適應은 統制하는 一群의 心理的 過程으로 “過程으로서의 自己”를 意味한다.

Jung, Symonds 및 Chein 등은 自己自身에 대한 概念體制를 自己(Self), 一群의 心理的 過程을 自我(Ego)라고 구별 使用하였고, 한편 Sherif, Shobin 등은 自己自身에게나 他人들 및 社會制度에 관하여 個人의 態度를 말할 뿐만 아니라 個人의 行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自己(또는 自我)가 對象인 동시에 過程임을 意味하여 이 두 개념을 구별없이 混用하였다²⁾.

自己理論의 현저한 貢獻을 한 象徴의 相互作用 理論家들은 “Self”라는 단어 대신에 “Self-concept”이라는 복합어를 使用하여 Self와 Ego의 混用에서 오는 폐단을 없애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³⁾.

Kinch⁴⁾는 自我概念 理論을 체계화시키는 過程에서 ① 個人의 自我概念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

하는가에 대한 그의 知覺에 근거를 두며, ② 個人의 自我概念은 그의 行動方向을 決定하는 데 영향을 주며, ③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그의 知覺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반영한다고 說明하였다.

Ryan⁵⁾은 自我概念이란 自己自身の 特性, 能力, 缺點 및 外貌에 대한 個人의 知覺이고, 自己自身을 한 個人으로 識別함으로써 知覺되는 特性의 全體組織體이며, 知覺의 客體로서의 自我는 人間의 行動方向을 決定하는 단위라고 하였다.

Rogers⁶⁾는 自我概念이란 個人의 意識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容納된 自我知覺의 組織된 形態이며, 人間의 모든 適應行動을 說明하는 中心概念이라고 하였다. 한편 정원식⁷⁾은 한 個人이 그가 처해 있는 生活의 場에서, 自己自身 및 그의 周圍環境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말한다고 自我概念을 정의하였으며, 自我의 構成要素로서 身體的, 道德的, 性格的, 家庭的 및 社會的 自我를 포함시켰다.

以上에서 自我概念이란 한 個人이 自己自身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意味, 態度, 느낌 등 知覺의 총체로서 自己自身에게 客觀的 事實이 어떻게 투사되어 知覺되느냐에 따라서 肯定的 또는 否定的 自我概念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自我概念은 人間行動 및 態度를 形成하는 하나의 重要的 決定要因이라고 할 수 있다.

2. 自我概念과 衣服行動

Ryan⁵⁾에 의하면, 衣服은 身體的 自我概念을 形成하는데 重要的 役割을 하며, 自我尊重感과 他人으로부터의 受容을 조정하는 하나의 手段이 되며, 또다른 研究 결과에서 지배적인 性格이 높은 學生들이 자신의 衣服을 높이 評價하고 自信感 및 自負心이 높은 學生들이 자신이 衣服을 잘 입었다고 評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Moothart⁸⁾는 衣服을 着用한 外貌에 대한 關心이 적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評價도 낮았으며, Klaasen, Humphrey와 Creekmore⁹⁾는 男女 모두 自我尊重감이 높은 學生들은 衣服의 審美性을 중요시하였고, 衣服을 他人의 주의를 끌기 위한 手段으로 使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임춘봉¹⁰⁾의 연구에서는 總自我肯定 및 自我에 대한 知覺과 衣服의 滿足度 사이에는 正的인 상관계가 있었다.

3. 男子의 衣服行動

일반적으로 衣服行動에는 性別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男子들에 대한 衣服行動 研究는

많지않으나, 그중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측면은 社會階層 및 職業과 관련된 것들이다.

Hurlock¹¹⁾은 男性들 사이에서 衣服은 社會的 身分과 職業的 成功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指針이 되며, 目標達成을 위하여 衣服을 使用할 것이라고 하여 男性들의 社會生活에서도 衣服은 중요한 役割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Hoult¹²⁾는 實驗研究 결과,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衣服은 社會經濟的 身分을 評價하는 중요한 要因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Form과 Stone¹³⁾의 연구에서, 精神노동자들은 肉體 노동자들보다 衣服을 더 중요시하고, 그들 자신의 衣服에 대한 他人의 評價에 關心이 많았으며, 한편 肉體 노동자들은 衣服이 자신에 대한 評價基準이 된다는 것을 거의 認識하지 않았으며, 衣服의 견고성 및 실용성을 더 중요시하였다.

Golightly¹⁴⁾에 의하면, 수입은 流行을 認知하는데 영향이 있는 가장 중요한 要因이었으나, 年齡, 教育水準 및 職業들과 流行에 대한 認知사이에는 유의적 관계가 없었다고 하였다.

Adams¹⁵⁾의 연구는 自己에 대한 衣服受容의 범위가 넓은 사람은 社會的으로 不安定하고 自我尊重感이 낮았으며, 衣服規範에서 流行의 固守는 社會的 不安定, 경직성 및 自我尊重感和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하였다.

Richard와 Hawthone¹⁶⁾의 연구에서, 身體에 대한 滿足은 衣服行動 및 價値觀과 유의적인 관계가 없었으나, 社會的 價値觀이 높으면 衣服의 身分象徵에는 關心이 낮았고, 전반적으로 衣服 選擇時에는 經濟性에, 着用時에는 安樂感에 가장 關心이 높았고, 流行에는 關心이 낮았다.

우리나라 男子학생들은 경직성이 높을수록 衣服의 同調性에 關心이 높았고, 個性에 關心이 높을수록 流行에는 關心이 낮았으며¹⁷⁾, 衣服購入時, 經濟的인 면보다 衣服의 價値를 색깔이나 모양에 두고 있었다¹⁸⁾.

Ⅲ. 假 說

본 연구는 自我概念이 衣服行動, 특히 成人男子의 의복선택 및 착용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規明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그외에 부가적인 몇가지 문제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가설>

1. 전반적인 自我概念과 衣服의 滿足도는 關係가 있을 것이다.

2. 自我評價와 衣服의 誇示性은 關係가 있을 것이다.
3. 身體的 自我와 衣服의 誇示性은 關係가 있을 것이다.

<부가적 관심>

1. 가설이외의 自我概念 變因과 衣服行動과의 關係
2. 직종별 차이
3. 의복 현황

Ⅳ. 方法 및 節次

A. 측정도구

1. 自我概念 檢査

자아개념검사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는 정원식의 標準化된 自我概念 檢査⁷⁾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Fitts의 尺度를 기초로 한 자기 진술 내용 100문항이며, 구성척도는 自我肯定, 自我評價, 變散性尺度 및 分布尺度로 구분된다. 자아긍정점수는 外的自我準據體制(신체적, 도덕적, 성격적, 가정적, 사회적 자아 및 總點)로 나누어지며, 측정결과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분석에 개별적으로 포함된 尺度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總自我肯定: 개인의 전체적인 자기 존중감
- 2) 自戒評價: 개인의 방어적 특성과 자기 자신의 좋은 점만 나타내려는 허위노력.
- 3) 身體的 自我: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 건강상태, 신체적 외모, 재능 및 성적매력 등
- 4) 道德的 自我: 도덕적 가치, 자기 자신의 인간됨에 대한 선악의 의식 등.
- 5) 性格的 自我: 자기 존중감, 자퇴의 느낌, 자신의 성격에 대한 평가.
- 6) 家庭的 自我: 가정의 일원으로서 자기 자신의 인간적 가치의 인정 및 평안, 원만한 가정생활 영위.
- 7) 社會的 自我: 他人과의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보는 관념체제

2. 衣服行動 檢査

자기 자신의 의복에 대한 평가, 관심, 태도, 선택 및 사용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3측면의 자기 10문항의 5단계 평정법으로 되어있다. 衣服에 대한 滿足도 및 誇示性은 가설 검증을 위한 것이고, 流行은 부가적으로 流行에 대한 태도를 알기 위한 것이다.

各 문항 先行研究들에서 신뢰도 및 타당성이 인정된 것에서 선택된 문항들(滿足도: 임춘봉¹⁰⁾ 4개, 誇示性: 이금실¹⁹⁾ 7개, 流行: 강혜원¹⁷⁾ 7개)과 본 연구를 위하여 작성된 것들이며, 전문가의 검토, 수정 및 보

원을 거쳐 무작위로 배치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満足度 : 자기 자신의 의복에 대한 가지수, 값진 옷 및 어울리게 입는 능력등에 대한 만족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의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誘示性 : 눈에 띄는 색이나 스타일의 의복을 선택, 착용함으로써 주의를 끌려는 태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복으로써 자신을 과시하려는 관심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3) 流行 : 의복을 선택할 때 유행형을 고려하고, 유행과 보조를 맞추려는 태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3. 衣服現況 檢査 및 背景

남자의복의 새로운 정보에 대한 관심, 의복구매장소 및 착용용도에 따른 衣服選擇基準 등의 12문항과 이외에 피검자자의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직위 및 결혼여부에 대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B. 節次, 標集對象 및 統計處理

본 연구는 課查研究로서, 34명이 참가한 예비조사를 거친 설문지를 1979년 1,2월에 임의 선정한 3직종의

<표 1> 표집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및 월수입분포 (n=532)

직 종	은행원		일반사무직종사자		교 사		합 계	
		%		%		%		%
연 령	20 ~ 29세	50	56	15	40			
	30 ~ 39	46	37	49	44			
	40 ~ 49	3	5	30	13			
	50세이상	1	2	6	3			
교 육 정 도	중 학 교	1	1	0	1			
	고 등 학 교	20	8	8	12			
	전 급 문 · 초 급 대 학 교	1	2	12	5			
	대 학 교 대 학 원	72	80	65	72			
월 수 입	10만원이하	3	5	1	3			
	10~20만원	42	53	59	51			
	20~30만원	36	28	32	32			
	30~40만원	11	11	6	9			
	40~50만원	6	2	1	3			
	50만원이상	2	1	1	2			
n	171	181	180	532				

White collar workar 에 속하는 직장을 방문 배부하였고 회수된 592부중 완전한 532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연구의 자료분석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각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적률상관계수로 각 직종간의 차이는 변량분석으로써 검증하였다. 또한 각 변인에 대한 뜻수분포, 평균치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집대상은 은행원 171명, 일반 사무직 종사자 181명, 교사 180명의 총 532명이며, 그 연령, 교육수준 및 월수입 분포는 <표 1>과 같이 20~30대의 연령이 84%, 대학교육 이상 82%, 10~30만원 월수입 83%, 그리고 기혼 62% 미혼 38%이었다.

C. 調査의 限界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成人男子中 銀行員, 一般 事務職 종사자 및 教師만을 對象으로 하였고, 이들의 연령은 젊은층에 치우쳐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론을 成人男子에게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V. 結 果

A. 自我概念과 衣服行動과 관계

분포경향을 보면 自我概念에 있어 전반적인 自我概念을 나타내는 總自我肯定點數(신체적, 도덕적, 성격적 가정적 및 사회적 자아의 合算)는 가능한 點數範圍가 90~450점이었으나 실제로는 238~409점이었고, 85%가 271~350점 사이를 차지하였다. 自我評價는 가능한 點數範圍가 10~50점이었으나 실제로는 16~50점이었고, 26~40점사이가 88%를 차지하였다. 身體的 自我는 가능한 點數範圍가 18~90점이었으나 실제 범위는 38~87점이었고, 91%가 45~75점사이를 차지하였다. 衣服行動에 있어 각 측면의 가능한 點數範圍는 10~50점이었으나 실제로 의복의 만족도에서는 17~43점이었으며, 87%가 25~39점사이를 차지하였고, 과시성에서는 15~42점이었으며 86%가 21~35점사이를 차지하였고, 유행은 14~43점이었으며 93%가 21~39점사이를 차지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한 相關關係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로, <가설 1>의 전반적인 자아개념과 의복의 만족도와는 p<.01 수준에서 正的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전반적인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衣生活에서도 보다 満足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가설 2>의 자아평가와 의복의 과시성과는 p<.05 수준에서 낮

은 正的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자아평가가 높을수록 의복의 과시성에 보다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가설 3>의 신체적 자아와 의복의 과시성과는 $p < .05$ 수준에서 낮은 正的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의복의 과시성에 보다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로써 <가설 1, 2, 3>은 긍정되었다.

가설이외에 나타난 자아개념 下位尺度와 3측면의 의복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상관계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의복의 만족도는 모든 外的自我準據體制와 正的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自我評價와는 否的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로, 과시성은 社會的 自我와는 正的인, 道德的 自我와는 否的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로, 流行은 身體的, 社會的 自我, 總自我肯定, 自我評價 사이에서 正的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2>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n=532)

의복변인 자아개념변인	만족도 r	과시성 r	유행 r
신체적 자아	.24**	.10*	.17**
도덕적 자아	.12**	-.12**	.03
성격적 자아	.19**	-.05	.03
가정적 자아	.22**	-.00	.04
사회적 자아	.17**	.12**	.19**
자아평가	-.10**	-.10*	.10*
전반적인 자아개념 (총자아긍정)	.25**	.01	.12**

* .05 수준에서의 유의도

** .01 수준에서의 유의도

B. 배경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배경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는 <표 3>과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의복의 과시성 및 유행에 대한 보다 낮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복에 보다 만족하고 있으나 과시성에 대하여는 보다 낮은 관심을 보

<표 3> 배경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n=532)

의복변인 배경변인	만족도 r	과시성 r	유행 r
연령	-.02	-.14**	-.13**
교육수준	.11*	-.10**	-.05
월수입	.08	-.06	-.10*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 .01 " "

었다. 월수입이 높을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은 보다 낮았다.

C. 衣服現況

첫째로, 男子衣服에 대한 記事나 廣告를 신문 또는 잡지에서 읽는 정도는 표집대상의 78%가 때때로 또는 별로 읽지 않고 있었고, 의복의 새로운 정보에 대한 관심도는 67%가 그저 그렇거나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유행에 대한 정보 根源은 매스컴이 47%, 친구 및 동료가 34%이었다.

둘째로, 紳士服은 체형에 맞게 해주기 때문에 87%가 맞춤 양복점에서 마련하고 있고, 8%만이 既成服센타를 이용하고 있었다.

셋째로, 着用用途에 따른 衣服 選擇基準에 있어서 다섯가지 용도에 대한 선택기준을 제시하고, 그중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을 착용 용도별로 표시하도록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安樂感은 사업상 중요한 때만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의복 선택기준이었다.

衣服의 選擇基準과 衣服行動과의 관계는 <표 5>와 같이 滿足度는 어떠한 선택기준과도 유의적인 관계가 없

<표 4> 용도에 따른 가장 중요한 의복선택기준 분포 (n=532)

용도 선택기준	매일출근할때 %	사업상중요할때 %	휴일의가벼운외출때 %	스포츠, 소풍 때 %	집에서 %
가 격	20	9	7	6	6
안락감	47	26	72	64	77
견고성	7	4	8	24	15
유행성	10	20	12	5	1
신분상징성	16	41	1	1	1
합 계	100	100	100	100	100

<표 5> 의복 선택기준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n=532)

의복변인 선택기준 a	만족도 r	과시성 r	유행 r
가 격	-.05	-.12**	-.09*
안락감	.06	-.06	-.10*
견고성	-.06	-.08	-.12**
유행성	-.03	.23**	.32**
신분상징	.03	.08	.08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 .01 수준에서 유의적임

a 의복 구입시 가장 중요시 하는 것

〈표 6〉 의복행동에 대한 직종별 차이

(n = 532)

직종 M, S.D.	은 행 원		일반 사무직 종사자		교 사		F-ratio
	M	SD	M	SD	M	SD	
의복번인							
만 족 도	32.51	4.86	32.94	4.81	32.23	5.21	.95
과 시 성	26.43	4.95	27.42	5.27	27.15	5.28	1.72
유 행	28.04	4.87	29.38	5.62	27.84	6.04	4.10*

* 105 수준에서의 유의도

〈표 7〉 자아개념 하위척도에 대한 직종별 차이

(n = 532)

직종 M, S.D.	은 행 원		일반사무직 종사자		교 사		F-ratio
	M	SD	M	SD	M	SD	
자아개념번인							
신 체 적 자 아	64.04	7.55	64.56	8.23	63.32	8.60	3.58*
도 덕 적 자 아	64.31	6.60	65.58	6.49	65.36	6.16	1.96
성 격 적 자 아	62.53	7.33	63.92	8.47	61.96	7.08	3.11*
가 정 적 자 아	64.36	7.09	65.75	7.25	63.61	7.17	4.15*
사 회 적 자 아	59.33	7.42	60.20	6.75	58.12	6.79	4.06*
자 아 평 가	31.92	5.07	31.64	5.04	31.46	5.23	0.36
총 자 아 긍정	314.57	26.51	321.02	30.18	312.57	26.98	4.48**

* .05 수준에서의 유의도

** .01 수준에서의 유의도

었으나 誇示性은 2가지의 선택기준, 流行은 4가지의 선택기준과 正的인 또는 否的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D. 職種別 差異

직종별 차이를 變量分折으로 검증한 결과, 〈표 6〉과 같이 流行에서만은 p<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한편 自我概念 下位尺度는 〈표 7〉과 같이 신체적, 성격적, 가정적 및 사회적 자아는 p<.05 수준에서, 총 자아긍정은 p<.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Ⅵ. 論 議

成人男子들의 自我概念과 衣服行動과의 연구 결과를 문헌조사를 토대로 논하면 다음과 같다.

A. 自我概念과 衣服行動과의 관계

첫째로, 전반적인 自我概念과 衣服에 대한 滿足도의 관계는 의미있는 正的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Ryan의 자신에 대한 衣服評價와 自信感과의 관계³⁾, 임준봉의 自我概念과 의복에 대한 만족도와와의 관계¹⁰⁾를 모두 지지하고 있다.

둘째로, 自我評價와 衣服의 誇示性과의 관계는 의미

있는 正的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Klassen, Humphrey 및 Creekmore의 自己評價와 他人의 주의 집중을 위한 手段으로서의 衣服使用⁹⁾ 및 Moothart의 自己評價와 衣服 着用 外貌에 대한 關心과의 관계⁸⁾등을 지지하고 있다.

셋째로, 身體的 自我와 衣服의 誇示性과의 관계는 의미있는 正的인 상관관계를 보여, 이는 임준봉의 身體的 自我와 身體 誇示道具로서의 衣服使用 結果¹⁰⁾를 지지한다.

넷째로, 衣服의 滿足도는 가설이외의 관계에서도 自我評價를 제외한 모든 自我概念 下位尺度들과 의미있는 正的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여러 측면의 자신에 대한 滿足한 상태가 衣服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같은 상황하에서도 개인에 따라서는 衣服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을 가질 수 있으며, 의복의 불만·불평은 否定的인 自我概念의 하나의 표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衣服의 滿足도는 자아개념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의 하나이며, 나아가서는 개인이 좀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로, 衣服의 滿足도와 自我評價와의 의미있는 否的인 상관관계는 自我評價가 높은 것은 자기자신의 좋은점만을 나타내려는 방어적인 性格의 자신에 滿足

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의복면에서도 滿足하지 못한다. 이 결과는 정원식의 自我概念檢査法 요강에 제시된 總自我肯定과 自我評價 사이의 否의인 상관관계($r = -.26^*$)를 지지한다고도 볼수 있다.

B. 衣服 現況

첫째로, 神士服은 體型에 맞게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이 맞춤 양복점에서 마련하고 있어, 신사복의 기성화는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풀이되나, 만약 본 연구에서 낮은 社會經濟的 階層을 포함시켰다면 그 利用度는 좀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성복 생산에 체형에 맞고 安樂感을 주는 신사복 생산은 같은 경제적 여건하에서의 보다 충족된 衣生活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衣服 着用目的에 따른 衣服 購入時 가장 중요한 選擇基準은 安樂感, 즉 입어서 편안한 것이었다. 이것은 의복에 대한 實質的, 機能的 측면을 중요시한 현상이며, 유행에 높은 가치를 둔 美國男子의 衣服行態연구¹⁴⁾ 결과와는 상치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生活水準 向上 및 多樣한 合成纖維 生産이 衣服이 낡아서 못입고 버리는 경우보다 오히려 流行이 지나서 못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될 때, 전통을 중요시하는 한국사회가 男子들을 流行에 민감하지 않게 만들었거나 또는 流行을 중요시 한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때문이 아닐가도 생각된다. 그러므로 衣生活의 合理化를 위하여는 의복 구매시의 선택기준에 流行경향을 고려하도록 하므로써,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女子에게는 流行이 중요한 측면인 것을 생각할 때 衣服行動에 있어서의 성별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C. 職種別 比較

衣服行動에 있어 流行에 대한 關心만은 일반 사무직 종사자들이 가장 높고, 한편 교사들이 가장 낮은 것은 직업상의 對人관계가 서로를 잘 모르는 또는 잘 아는 사람들사이에서의 衣服이 지닌 象徴的 價値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¹²⁾를 지지한다. 직종별에서 만약 본 연구가 精神노동자와 肉體노동자들을 比較하였다면, 衣服行動에 좀더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반적인 自我概念은 일반 사무직 종사자들이 가장 높았고, 교사들이 가장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大企業의 일반 사무직 종사자(본 연구의 표본)들은 能力이 認定되면, 더 좋은 職位에, 또는 더 좋은 職場

으로의 전망이 밝은 반면, 교사들은 교육수준은 가장 높으나, 낮은 수입 및 낮은 社會的 認定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他人 또는 社會的 評價가 自我概念 形成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본 研究의 結果를 기초로 合理的인 衣生活를 위한 제안은 ① 男子들의 社會生活에서의 衣服은 자기자신 및 대인관계에 있어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므로, 衣服의 重要性을 認識하게 하는 전반적인 지도제몽이 필요하며, ② 衣類生産業者들은 우리나라 男性들의 體型에 맞고 다양한 스타일의 품질좋은 그리고 安樂感을 주는 기성신사복을 生産하여야 할 것이다.

〈'81年 10月 30日 接受〉

참 고 문 헌

- 1) James, W.,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1, N.Y., Dover Publications, Inc., 291~308. (1981).
- 2) 이지영, 이관용, 홍승철 공역. 「성격의 이론」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85, 90, 567, 572 (1973).
- 3) 전병재, 「사회과학」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편찬위원회, 117, (1975).
- 4) Kinch, J.W., "A Formalized Theory of the Self-Concep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8, 481~485 (1963).
- 5)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82~85 (1966).
- 6) Rogers, C.R.,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483~498 (1965).
- 7) 정원식, 「자아개념검사 검사법 요강」. 서울, 코리아안테스팅센터, (1968)
- 8) Moothart, P.F., "A Study of the Change in the self-Concept After a Negative Evaluation of Clothing Appearance and the Relationship to the Individual's Interest in Cloth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ornell University, 1966.
- 9) Humphrey, C. Klassen, M. and Creekmore, A. M.,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246~250, (1971).
- 10) 임춘봉, "大學生의 自我概念과 의상행위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4).

- 11) Hurlock, E.B.,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 N.Y.: McGraw-Hill Book Company, Inc., 389, (1975).
- 12) Houlst, T. F., "Experimental Measurement of Clothing as a factor in Some Social Ratings of Selected American 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 324~328, (1955).
- 13) Form, W.H. and Stone, G.P., "Urbanism, Anonymity, and Status Symbolis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2, 504~514, (1957).
- 14) Golightly, A. "Men's Perceptual Awareness and Acceptance of Fash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tah State University, 1974.
- 15) Adams, A.E., "Clothing Acceptance for the Self and for Others and Adherence to Selected Clothing Norms as Related to Selected Aspects of Personality in a Sample of Black College Ma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2.
- 16) Richard, E.A. and Hawthorne, R.E., "Value,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190~194, (1971).
- 17)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流行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제11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4
- 18) 김수복, "남자대학생의 의복 구입 동기" 「상경논총」. 제24호, 연세대학교 상경연우회, (1972).
- 19) 이금실, "衣服의 身分象徵性和 社會心理學的 變因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8).